조계종 일반사면, 사면위원회 심사 거친다

[정리] 제210회 중앙종회 임시회 결과

윤호섭 기자 sonic027@hyunbul.com

그동안 별도의 심사절차 없이 진행된 조계종 징계자 사면이 앞으로는 심사위원회를 거치게 됐다.

조계종 중앙종회(의장 원행)는 3월 21일 속개한 제210회 중앙종회 임시회서 종헌종법특별위원회가 제출한 '사면·경감·복권에 관한 법 제정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멸빈 미만 징계자에 대한 사면과 경감, 복권은 종법에 따라 종정이 행하도록 종헌에 명시돼 있지만 구체적인 법적근거가 오랫동안 마련되지 않아 투명하게 이뤄지지 못했다는 지적이 많았다. 하지만 이 법이 제정되면서 조계종 일반사면 법적절차가 정립됐다.

제정안에 따르면 징계자 사면과 경감, 복권은 9인으로 구성된 사면심사위원회를 거쳐야 한다. 위원회에는 총무원장이 추천한 2인, 중앙종회의장이 추천한 종회의원 2인, 교구본사주지회의에서 추천한 3인과 호법부장, 호계원 사무처장이 참여한다. 위원회는 심사결과를 총무원장에게 제출하고, 총무원장이 중앙종회 동의를 받아 종정에 사면안을 품신해야 한다. 이에 따라 종정은 징계의 사면과 경감, 복권을 행한다.

이와 함께 사면·경감 대상자의 구분도 명확히 했다. 공권정지 징계가 확정돼 집행 중인 자는 징계기간의 3분의1,

사면·경감·복권 종법 제정
성보보존법 개정안도 가결
한반도 평화 촉구 결의문도

제적 또는 법계강급의 징계를 받은 자는 징계 확정일로부터 5년이 경과해야 한다. 복권 대상은 징계가 종료되거나 사면된 후 공권을 제한받고 있는 자여야 한다. 특히 승려법에 의해 벌금이나 변상금 징계가 병과된 자는 납부 이전까지 사면과 경감, 복권 대상이 될 수 없도록 명시했다.

또한 중앙종회는 성보에 대한 불사관련 사항의 적정성과 사업수행자 선정을 위해 총무원과 교구본사에 불사심의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을 담은 '성보보존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이는 직영 및 직할사찰과 교구사찰서 시행 중인 불사심의위원회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혜광사 소유권, 동국대에 증여

시설노후로 인해 개보수가 시급한 것으로 알려진 동국대 비구니 기숙사 혜광사(유지재단 재산)의 소유권은 동국대에 증여됐다. 중앙종회는 총무원장이 제출한 비구니 수행관 소유권 증여 동의의 건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혜광사는 동국대 교비 투입을 바탕으로 즉각적인 보수에 들어갈 전망이다.

그간 혜광사는 붕괴위험까지 제기되며 건물 보수가 절실했지만 조계종유지재단 재산인 관계로 동국대의 보수비 투입이 불가능했다. 사립학교법에 따라 교비를 투입해 시설을 정비하기 위해서는 건물이 동국대 소유 교육용재산으로 등재돼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동국대는 총무원에 혜광사 건물 소유권 양도를 요청한 바 있다. 다만 중앙종회는 비구니 스님 기숙사 용도로만 사용하도록 증여 조건을 달았다. 또한 사용목적이 종료될 시 증여재산을 종단에 반환토록 했다.

각종 인사안 처리도

아울러 중앙종회는 각종 인사안을 처리했다. 먼저 영축총림 통도사 방장으로 추천된 성파 스님 추대의 건과 원로의원(수덕사 우송 스님) 추천의 건, 호법부장 임명 동의의 건을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또 재정분과위원장 정념 스님의 사직에 따라 후임 위원장으로 정오 스님, 신임 초심호계원장에 왕산 스님, 초심호계위원에 효성 스님을 선출했다. 이어 임기만료 된 중앙선거관리위원 태성 스님을 다시 선출하고, 종립학교관리위원으로 법원(직할교구)·우봉 스님을 선출했다. 불기2561(2017)년도 중앙종무기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확정했다.

끝으로 "평화의 불을 통해 한반도에 평화가 자리 잡길 기원하는 '한반도 평화와 생명존중을 위한 촉구 결의문'은 종단 대표 대북지원단체인 민족공동체추진본부를 중심으로 하도록 한 뒤 채택하고, 회기를 앞당겨 폐회했다.



성운 스님의
보리수 아래서

공양 부처님 공경하듯 이웃 섬기네

공양(供養)은 이웃을 공경하는 마음으로 받들어 섬기고 잘 돌보아 이롭게하는 덕행입니다. 공양은 보시바라밀과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베풀고 나누는 보시행에 공경과 찬탄 그리고 봉사의 뜻을 담아 공물(供物)과 마음을 올리는 것이 공양입니다.

"일체중생에게 순종하면서 섬기고 공양하기를 마치 부모와 같이하고 스승과 같이 받들며 아라한이나 부처님과 다름없이 받들라"〈화엄경〉 보현행원품의 가르침입니다.

잘 익은 벼가 고개를 숙이듯 아상과 집착을 버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보시할 때 참다운 공양을 할 수 있습니다.

공양(供養)을 화안애어(和顔愛語)라고 합니다. 화안애어는 참다운 공양이고, 부처님 마음입니다.

봉사자의 희열(helper's high)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미국의 내과의사 앨런룩스가 2001년 〈선행의 치유력〉에서 처음 사용했는데, 봉사자 3천명 중 95%가 남을 도우면서 행복감을 경험했다고 합니다.

미국 미시건 대학에서도 5년에 걸쳐 봉사자 423쌍의 장수부부들을 조사했는데, 혈압, 콜레스트롤 수치가 낮아지고 엔도르핀이 정상수치의 3배 이상 상승했습니다. 봉사는 장수와 건강, 행복감에 도움을 준다는 연구 결과입니다.



제목·공양-만행화 그림·조향숙

'화안애어' 참다운 공양
봉사는 건강·장수에 도움
연기사상 함축 '공양게'

*불자들은 부처님께 육법공양(六法供養)을 올립니다. 이 의식은 향, 등, 꽃, 과일, 차, 쌀 등 6가지 공양물이 상징하는 공양의 참 뜻을 되새기며 보살의 삶을 다짐하는 정진입니다.

육법공양물이 상징하는 뜻을 잘 이해하고 공양을 올리면 그 공양이 6바라밀 수행임을 알게 됩니다. 향(香)은 해탈향, 등(燈)은 반야등(般若燈), 꽃은 만행화(萬行花), 과일은 보리과(菩提果), 차(茶)는 감로다(甘露茶), 쌀은 선열미(禪悅米)입니다.

*"성 안 내는 그 얼굴이 참다운 공양구요. 부드러운 말 한마디 미묘한 향이로다. 깨끗해서 티가 없는 진실한 그 마음이 언제나 한결같은 부처님 마음일세"

많은 불자들이 애송하는 문수보살 게송입니다.

성 안 내는 그 얼굴 화안시(和顔施)와 부드러운 말 한마디 언시(言施)를 화안애어(和顔愛語)라고 합니다. 화안애어는 참다운 공양이고, 부처님 마음입니다.

도움을 준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위안을 받았다는 봉사자들의 말에 귀 기울여야겠습니다.

*절에서는 식사를 '공양'이라고 하고, 공양전에 공양게(오관게五觀偈)를 독송합니다.

"이 음식이 어디에서 왔는고/ 내 덕행으로 받기가 부끄럽네/ 마음의 온갖 욕심 버리고/ 몸을 지탱하는 약으로 알아/ 도업을 이루고자 이 공양을 받습니다"

음식이 나에게 오기까지의 모든 인연, 대지와 햇빛, 물, 농부의 땀, 생명의 희생같은 공양의 연기적 관계를 관(觀)하는 공양게는 연기사상이 함축된 깊은 뜻의 게송입니다.

재가자들도 식사때마다 생명을 살리는 음식에 감사합장을 합시다.

*공양은 이웃과의 관계를 친밀하게 합니다. 자비심을 길러줍니다.

'허공계와 이웃의 번뇌가 다할때까지 공양한다'는 보현보살의 서원을 마음에 새깁시다.

이 모든 말씀은 불법에서 가장 으뜸인 연기(緣起)의 가르침입니다.

〈삼천사 회주·동국대 석좌교수〉

총지종 종령 법공정사 4월 12일 추대식 봉행

서울 강남 총지사 서원당서



불교총지종은 4월 12일 오후 2시 서울 강남구 총지사 서원당서 총지종 제12대 종령 법공 대종사〈사진〉 추대식을 봉행한다. 이날 행사는 △법통 및 법의 이운 △종령 선서 △헌화 및 훈향정공 △유가삼밀 △봉행사 △추대사 △창교가일동합장례 순으로 진행된다.

前통리원장 법공 정사는 지난 1월 18일 승단총회서 만장일치로 종령에 추대됐다. 임기는 2월 17일부터 6년간이다.

한편 법공 정사는 1943년 포항 출신으로 1983년 출가했다. 총지종 제10대·제13대 통리원장과 법장원장을 지냈으며, 한국불교종단협의회 상임이사와 BBS불교방송 이사, BTN불교TV 이사 등을 두루 거친 뒤 2010년부터 기로원에 주석해왔다.

김주일 기자 kimji4217@hyunbul.com

법진 스님, 원로 불러 "조계종 모략" 변명

시국성명 낸 원로들과 첫 비공개 간담회

이사회, 도리어 원로 비판도
"성명 동참 분원은 몇 안 돼"

여직원 성추행 혐의로 1심서 실형을 선고받은 (재)선학원 이사장 법진 스님이 시국성명을 발표한 원로스님들을 초청해 "조계종의 중상모략"이라고 주장했다. 게다가 시국성명에 동참한 분원은 몇 되지 않는다며 도리어 원로들을 지적해 빈축을 사고 있다.

선학원 이사장 법진 스님은 최근 시국성명에 동참한 창건주·분원장 스님들에게 "건의사항이 있으면 재단 구성원으로서 3월 21일 개최되는 이사회에 동참해 해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 이에 원로스님들은 서울 안국동에 위치한 한국근대불교문화기념관을 방문했지만 공문과는 달리 이사회 아닌 간담회가 진행됐다. 또한 선학원은 시국성명에 참여한 39명 중 현직 창건주와 분원장만 출입케 해 13명의 스님들만이 회의장에 들어갔다. 원로스님들의 시자를 비롯해 기자들의 출입은 금지됐다.

이사회, 재차 판결 잘못 주장

간담회는 2시간동안 이어졌다. 스님들에 따르면 간담회는 △이사장 인사말 △불교문화기념관 불사 경과보고 △진상조사위원회 발표순으로 진행됐다. 원로스님들의 발언기회는 많지 않았다.

원로스님들은 이사장 법진 스님이 선학원 사태에 대한 사과나 사퇴의사 표명 대신 변명으로 일관했음을 강조했다. 연대선원 자민 스님(80·前선학원 이사)은 "여직원 성추행 문제에 대해 법진 스님은 조계종의 중상모략이자 사실무근이라고 변명했다. 또 피해여성이 정신착란이니 오해하지 말라고 했다"면서 "실형을 선고한 국가법이 잘못되고, 진상조사위원회의 조사결과가 맞다고 주장했다. 우리는 몇 마디밖에 할 시간이 주어지지 않았다"고 간담회 내용을 밝혔다.

이와 관련해 '선학원의 미래를 생각하는 분원장 모임' 총무 심원 스님은 "선학원 진상조사위원회 위원 5명 중 4명이 공찰 주지다. 임명권을 이사장이 갖고 있기 때문에 제대로 조사할 수도 없는 구조"라고 이사회를 비판했다.

또한 원로스님의 위임장을 들고 간담회에 참석했다는 한 스님은 "선학원 분원 300개 중 시국성명에 참여한 분원이 소수라고 지적했다. 가장 불쾌한 발언이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4월 분원장회의서 거취 표명

이외에 원로스님들은 위압적인 간담회장 분위기가 불편했다고 밝혔다. 한 스님은 "현직 이사들과 이사회가 초대한 장로원 스님 등 30여 명이 이미 앉아있었다. 시국성명에 함께한 성열 스님(강남포교원·前선학원 이사)이 법진 스님에게 사퇴하라고 하자 전직 이사로서 선학원이 이 지경이 되도록 무얼 했냐고 도리어 비난이 쏟아졌다"고 말했다.

아울러 원로스님들에 따르면 이사장 법진 스님은 4월 24일 봉행되는 불교문화기념관 개관식 후 전국분원장회의를 개최키로 했다. 이 자리서 법진 스님은 본인의 거취를 밝히겠다고 원로스님들에게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원로스님들이 밝힌 간담회 내용 사실관계를 확인하고자 선학원 관계자에게 연락했으나 "비공개 행사였기에 확인해줄 수 없다"고 답변했다. 윤호섭 기자

세계에서 침 제일 의과대학, 중국 1위 대학 -
세계 100위 대학 남경대 재경
2018년도 남경 의대(중의학) 학생 모집


혜인스님
한국총장

조기유학생 어학단기반 모집
● 초 6년 ~ 고3 재학
● 남경사범대학 부속실험학교
www.njsdfc.co.kr

한국 유학생 중국의사 개업 취업
의료행위 할 수 있게 됐다
한국인 중국 의대졸업생 중국정부 중국 의사자격 취득한 외국인 개업 의사활동 허용한다고 중국정부는 발표했다.

❶ 특차모집(남경중의학대학)

학 과	학 제	모집인원	지원자격 및 제출서류
한의학과	5년	100명	• 최종학력증명 1부 • 최종성적증명 1부 • 입학신청서 1부 • 여권용사진 10부
석사과정	3년	50명	
박사과정	3년	10명	
재경대학	4년	80명	• 법학,경제,경영,무역,식품,금융 등

❷ 지원자격
▶ 고등학교 졸업 및 동등이상 학력자
▶ 주지스님 추천자

❸ 학교소개
▶ 세계침구 1위 명문 국립 한의과대학
▶ WTO 국제 전통의학 협력센터
▶ 부속병원3,제약공장,교육병원12,제약연구소 등 완비
▶ 중국어 어학원 및 유학생전용 기숙사
▶ 군입대 연기 가능
▶ 현재 생활관리 담당교사 상주하여 학사 관리
▶ 학자금 대출 가능
▶ 서울시내 대학 편입 가능
▶ 중국내 개업 의사 가능

❹ 전형방법 및 모집기간
▶ 전형방법 : 서류전형 및 면접
※모집기간 : 2018년 3월 30일까지 수시전형

❺ 지원서 교부 및 접수
▶ 교부 : 한국 사무처 – 홈페이지에서 다운받거나, 불교조계종 교학과에서 직접 교부 (지방은 우편으로 배부 가능) www.njutcm.co.kr
▶ 접수 : 불교조계종 한국분교(빠른 접수 가능) 서울특별시 성북구 동소문로 26가길 50-1(돈암동 83-2)
▶ 제출서류 특별전형 : 최종학력증명 및 성적증명서 각 1통
▶ 기 타 어학연수 및 조기유학에 관한 문의는 불교조계종 국제교류처(☎02-511-1080)으로 문의 바람.

❻ 학비(등록비 및 보험료 포함)
▶ 학사 과정 : 매년 25,800위안
▶ 석사 과정 : 매년 33,800위안
▶ 박사 과정 : 매년 41,800위안

■ 남경중의약대학(南京中醫藥大學)
南京市仙林大道138號(210023)
138 Xianlin Rd., Nanjing 210023, P.R.China
E-mail : overseas@njucm.edu.cn
Website : www.njucm.edu.cn

■ 한국상담처 : 불교조계종 총무원교육부
서울특별시 성북구 동소문로 26가길 50-1 (돈암동 83-2)
▶ 교학처 : (02)511-2026, 2027 Fax (02)511-2028
▶ 총장실 : (02)511-1080
▶ http://www.njutcm.co.kr